



II 국내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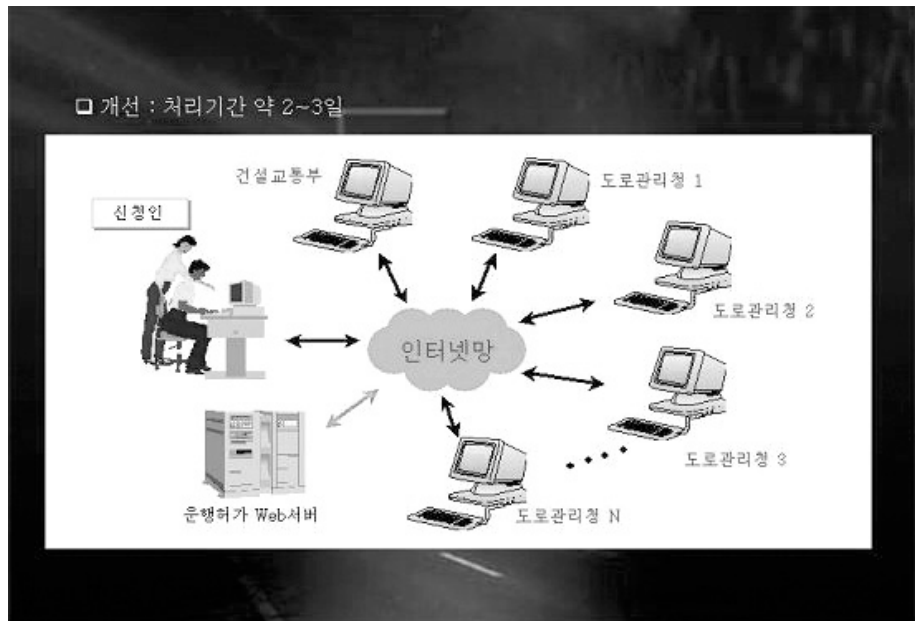
■ 운행제한 차량, 인터넷으로 허가 받는다

앞으로, 길이 16.7m, 높이 4.0m, 폭 2.5m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 허가를 인터넷을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규격이 초과되는 운행제한 차량의 허가는 신청자가 출발지의 도로관리청을 방문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기관은 운행구간의 관련 도로관리청에 문서로 운행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14일)되어 민원인 등의 불만이 제기되었고, 운행제한차량 허가취득을 고의로 기피하여 불법운행을 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04. 6월부터 '05. 2월까지 운행허가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각 도로관리청별로 시험운영을 거



처,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운영으로, 전국 도로상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의 위치, 제원 등에 대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민원인이 다양한 경로를 비교하고 최적의 노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민원처리기간도 현재 14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되어, 허가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해소와 불법운행을 방지하여,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05 업무보고-건교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도로교통 관련 분야 요약)

-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4월에 이전대상 기관과 시·도별 배치방안을 확정한다.
 - 약 18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로 이전하며,
 -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한다. 이를 위해 8월까지 지자체와 이전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중 구체적인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한다. 입지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개발계획 수립, 토지보상 및 건설공사를 거쳐 '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
 - 특히,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은 타 기관의 지방이전을 선도하기 위해 내년중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하여 '10년까지 조기 이전키로 하였다.
-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수도권은 '살기좋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본격 육성한다.
 - 선진국 대도시권 수준의 광역도로망·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수도권 고속도로망 및 철도 복선전철화(경의·경원·경인·경춘·중앙선)사업을 추진한다.
-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을 달성한다.



- 현재 교통카드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수단별로, 지역별로 달라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 금년에는 부산권과 김해시간, 경인버스와 수도권 전철간, 서울 교통카드와 고속도로·철도 카드간 교통카드 호환을 달성하는 등 연차적으로 호환성을 제고하여, 2007년에는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호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 또한, 교통카드의 사용범위도 고속도로, 철도,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확대하여 교통카드의 이용률을 제고한다.
-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9개노선(147km)과 광역전철 9개구간(260km)을 차질없이 건설한다.
- 금년에는 부산 3호선 1단계, 대구 2호선 등 지하철 2개 노선을 개통하고,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화를 완료한다.
 - 버스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땅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BRT)와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운송업체의 경영과 서비스를 평가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노력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승하차가 편리한 저상버스를 확대 보급하고, '08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계단이용으로 인한 불편을 완전 해소한다.
- 안전한 국민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를 '08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국도 167km에 歩道を 설치하고('05년, 40km), 인명피해가 많은 철도 건널목 661개소는 '12년까지 완전 입체화하기 위해 금년중 31개소를 완료하고, 61개소를 착수한다.
 - 또한, 지하철 내장재를 내년 6월까지 전부 교체하고, 지하철 승강장에 '07년까지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여 승강장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키로 하였다.
-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건설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건설기술력을 제고해 나간다.

- 일반·전문 건설 업종간 통합을 추진하여 그동안 업역 구분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난해 구축한 건설산업 중앙 DB를 활용하여 시공실적, 기술능력 등을 상시 점검하여 기준 미달업체는 퇴출을 유도한다.
 - 또한, 건설기술 R&D 예산을 '07년까지 매년 100%씩 증가하고 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현재 선진국의 60~70% 수준인 우리의 건설기술력을 2015년까지 선진국의 90% 이상으로 높히기로 하였다.
 - 이와 아울러, 정부의 건설외교를 강화하고 해외건설 진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건설수주를 지난해보다 10억불이 증가한 85억불을 달성하고, '15년까지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7위를 달성하기로 하였다.
 - 또한,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대표적인 비리 유발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설계감리, 설계변경, 턴키공사선정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비리 관련업체는 제재기준을 구체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건설경기 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빠른 시일내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과 종합투자계획을 조기 집행한다.
 - 상반기중 건설교통예산의 62%를 집행하고, 서수원~평택, 영덕~양재 고속도로와 판교·아산·파주 신도시 등 신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또한, 부산~울산, 무안~광주, 여주~양평 등 3개 고속도로사업에 연기금을 유치하고, 6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추가 추진하며, ABS 발행으로 1조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등 금년에 총 2조원의 건설투자를 확대하여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일 잘하고 깨끗한 부처'로 거듭나기 위하여 그동안의 혁신활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과학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직무성과계약제를 전면 시행하는 등 일 중심,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면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e-감사 시스템, 건축허가 인터넷 처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비리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기

로 하였다.

■ 평택-시흥 등 민자고속도로 6개사업 신규착수

건설교통부는 평택-시흥 등 6개 사업(총연장 252km, 투자비 7조 5,326억원)을 민자 우선추진 대상으로 선정하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제3차 공고 등 민자사업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민간이 개발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안한 15개의 고속도로사업의 일부로서, 건설교통부는 재정여건, 경제성·민자사업성 및 정부·국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민자추진이 가능한 10개 사업을 선정하고, 그중 우선순위에 따라 6개 사업을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제시된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교통량·사업성이 충분한 사업만 민자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통량 및 사업성을 교통개발연구원과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에서 재검토하였으며,

정부·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행료, 재정지원 수준, 운영수입보장 등에 대하여 민간제안자간 경쟁을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제안자는 우선추진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 제안내용보다 통행료, 재정지원, 운영수입보장, 수익률을 대폭 하향조정한 보완제안서(12개사)를 제출하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교통개발연구원·건설협회 등 도로·교통·민자 전문가 10인으로 평가위원회(위원장 : 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교수)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민자고속도로 우선추진사업 선정을 통하여,

- ① 신규 고속도로 건설로 건설경기 연착륙 등 종합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경기의 조기활성화를 유도하고,
- ② 수도권외의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해소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 ③ 추진순위 결정시 경쟁구도를 형성함으로써 그간 민자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던 통행료·운영수입보장 등 정부·국민부담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게 되어, 향후 민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우선추진사업의 발표로 고속도로의 노선 또는 사업시행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노선 및 사업시행자는 향후 제3자 경쟁, 협상 등 일련의 민자추진과정을 통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05.3월부터 우선추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선추진사업을 3개씩 2차로 나누어 제3자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제3자에 의한 경쟁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정부·국민 부담의 추가적인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선추진사업은 사업별로 금년 하반기에 협상을 마무리하여 '06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하고, 이번 우선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4개 사업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민자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 국도유지사무소 공사발주방법 획기적 개선

앞으로 건설교통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발주방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도로보수, 가드레일설치, 낙석산사태정비, 차선도색, 교량보수 등 국도유지 보수사업의 발주를 지금까지 개별사업별로 발주하던 것을 권역으로 묶어 통합발주하기로 하고, 일부 단순공종을 제외하고는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발주 및 시공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역별 통합발주 방식은 각 사무소별로 2-5개의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내 유사공종에 대해서는 최대한 묶어서 한꺼번에 설계 및 발주기로 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발주하게 되면 각 사무소별 연간 평균 발주공사 건수가 현행 150-200건에서 최소 20건 내외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공사수주 건수 축소로 인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발주규모(일반 : 50억이상, 전문 : 5억이상)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도유지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일부 단순공종을 제외하고는 현행 감독체제를 전면 책임감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 대상 사업은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해당되나, 이번에 처음으로 그 이하 공사에 대해서도 전면 책임감리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도유지건설사업에 권역별 통합발주 및 전면 책임감리가 시행되면 사업건수 대폭 축소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비리발생 소지를 줄이며, 책임감리 적용에 따라 공사품질저하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업무혁신 차원에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대해 CM(민간 일괄위탁시행)도입 등 다각적인 아웃소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타당성평가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 교통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과정을 전산화한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 타당성 분석의 효율성 및 편의성, 그리고 타당성 결과의 신뢰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교통시설투자평가 전산프로그램

- 건설교통혁신사업으로 2002년부터 2년에 걸쳐 개발된 「교통시설 투자평가 전산프로그램」 및 사용자 설명서는 전용 홈페이지(<http://kata.koti.re.kr>)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그림 2] 교통시설투자평가 전산프로그램 전용 홈페이지

-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이번 투자 평가 전산프로그램은 투자평가를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이도 사용자매뉴얼에 따라 프로그램에 간편한 입력을 통해 일반공무원 등이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문가 영역으로 여겨지던 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를 일반화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 졌던 교통시설투자의 편익/비용의 경제성 분석, 교통시설투자로 인한 지역별 임금, 고용, 생산 유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리고 민간자본 유치시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는 재무 타당성 평가에 대한 기능이 포함되어 교통시설 투자평가가 손쉽게 가능해졌으며, 또한 각종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시설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민감도도 분석할 수 있어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에 바탕을 둔 교통시설투자의 평가가 가능해져 정책 수립이나 계획시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산과정

- 교통시설투자평가 전산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유연성 및 확장성에도 중점을 뒀 개발되었는데,
 - 각종 편익과 비용의 항목 선택 및 추가, 각종 지표의 수정 및 첨가 기능 등이 포함되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평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타당성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특히, 프로그램의 자동갱신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을 등록만 하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기능까지도 포함해 향후 지속적인 갱신을 위한 기능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기초자료설정

구분	항목	설명
편의	통행시간감소	
편의	차량운행비감소	
편의	교통사고감소	
편의	환경비용(대기오염)감소	
편의	환경비용(차량소음)감소	
비용	방음사비_토공비	
비용	방음사비_교량건설비	
비용	방음사비_터널건설비	
비용	방음사비_접속시설비	
비용	방음사비_부대시설비	
비용	사업비_예비비	
비용	사업비_홍지보상비	
비용	유지관리비	
파급효과	지역경제파급효과	

교량건설비

종류	왕복2차로	왕복4차로	왕복6차로	왕복8차로
Slab_PC(천원/m)	20454.000000	33867.000000	47767.000000	61415.000000
Slab_PC(천원/m)	20811.000000	35303.000000	48261.000000	62545.000000
PSC_Beam(천원/m)	21184.000000	34740.000000	47526.000000	62411.000000
PCBOX_ILM(천원/m)	28888.000000	48147.000000	67340.000000	86644.000000
PCBOX_FCM(천원/m)	44762.000000	68987.000000	104692.000000	135803.000000
SteelBox(천원/m)	31609.000000	56213.000000	79569.000000	93462.000000

기본으로 적용 확인 취소

[그림 4] 지표의 통합관리

□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개발된 교통시설투자평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타당성 분석의 효율성 및 편의성, 그리고 결과의 신뢰성 및 분석의 표준화와 객관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의 바탕이 되는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의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이번 개발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인 갱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공사 부조리방지를 위해 수의계약제도 폐지

건설교통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건설공사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05.2월부터 긴급공사 등을 제외하고 전면 폐지키로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국도유지사무소의 건설공사 발주시 국가계약법령상 일반공사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소액공사의 수의계약범위를 지난 '03.10부터 2천만원이하로 대폭 축소하여 시행토록 한 바 있다.

그 결과 '03년에 비하여 '04년은 금액으로는 85%(1,620억원→ 250억원), 건수로는 55%(2,054건→925건)를 경쟁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조리 요인을 거의 해소 하였고 '03년 국도유지 발주금액 1,620억원의 95%인 1,370억원을 공개 경쟁 입찰로 전환하여 약 68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었다.

예산절감은 낙찰율 차이(5%정도)에 의한 것임

수의계약낙찰률 : 92.8%정도, 공개경쟁 낙찰률 : 87.8%

이번에 긴급공사 등을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폐지하게 된 배경은 수의계약제도가 시공 능력이 있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으나 외부입김 및 자의적인 업체선정을 위해 공사를 2천만원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사례와 형식적인 공개경쟁으로 특정업체가 공사를 독점하는 등 부패개연성이 남아있어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국도유지보수공사의 특성상 긴급복구 등을 위해 수의계약제도의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금액기준의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하는데 따른 보완조치로 도로 두절·교량붕괴 등 긴급한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되, 수의계약은 도로소통·가교설치 등 응급복구에 한하고 항구복구는 반드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관계없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

[국도유지보수공사 발주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별	합 계		경쟁계약		수의계약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4년	3,068 (100%)	509,244 (100%)	2,143 (70%)	484,234 (95%)	925 (30%)	25,010 (5%)
2003년	4,105 (100%)	862,731 (100%)	2,051 (50%)	700,640 (81%)	2,054 (50%)	162,091 (19%)

정에 의하여 긴급·비밀·신기술공사 등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함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사무소의 모든 공사는 전자 입찰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업자를 선정토록 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건설공사를 수주토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조리 요인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한편 수의견적과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률 차이로 연간 약 12억원이상의 예산절감도 아울러 기대하고 있다.

'04년 수의계약발주액은 약 250억원, 낙찰률 차이는 약 5% ⇒약 12억원이상 절감가능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4월 착공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바깥을 따라 순환하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총 연장 39.5km의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경기 화성시 봉담~동탄, 경기 평택시 오성~화성시 태안읍) 건설공사를 이르면 오는 4월 말 착수하기로 하고 이달 초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착공되는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는 십자(+)형으로 건설되는 데 이 중 동서축의 봉담동~동탄신도시 21.7km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구간으로 활용된다. 건교부는 실시계획 확정 및 도로부지 매입과 함께 오는 4월 말 착공해 2009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사업은 민자사업방식으로 건설되는 데 두산중공업 등 6개 건설업체가 출자해 설립한 경기고속도로(주)가 맡게 된다.

사업비는 1조2000억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어 정부의 재무적 투자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선정한 민자고속도로 우선 추진대상 6개 사업 가운데 최우선 추진대상 사업 3곳에 인천 송현~불로고속도로(인천 송현동~불로동 연장 17.4km) 건설사업을 포함시켜 이달 말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다.

이미 민간차원에서 사업제안이 돼 있는 이 고속도로에 대해 건교부는 이달 말께 제3차 제안공고를 내고 오는 8월까지 추가 사업제안을 접수한 뒤 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는 사업시행자를 공식 지정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거쳐 오는 2006년 말께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노선중 하나인

화도~양평고속도로(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양평군 옥천면 18.8km)에 대해서도 2006년 상반기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현재의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바깥을 따라 수도권을 순환(서울도심에서 반경 40~50km)하도록 하는 것으로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된다. 모두 민간자본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총 연장은 500km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 도공, 통행료 지불시스템 구축에 678억

도로공사가 전자카드·하이패스 등 통행료 전자지불 관련 시스템 구축에 올해 총 678억 원을 투입한다. 3일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http://www.freeway.co.kr>)가 밝힌 '통행료 지불 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수도권 폐쇄식 6개 영업소에 전자카드 시스템이 확대 구축된다.

연말까지는 전국 영업소 출구차로에 전자카드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전자카드는 버스전용카드와 같이 카드 내에 RF칩이 내장된 고속도로 전용카드다.

운전자가 직접 톨게이트 입·출구에 설치된 인식기에 카드를 접촉시켜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재 도로공사는 25만매의 전자카드를 제조·구매해 보급 중에 있다. 이와 달리 하이패스는 전용 단말장치를 차량에 내장, 카드접촉 등을 위해 정차할 필요없이 톨게이트에 설치된 인식기를 통과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징수되는 방식이다.

현재 4만2000대 가량의 전용 단말기가 보급된 상태다. 이 시스템은 기존 징수원에 의한 요금수납보다 4배, 전자카드식보다는 3배 빠른 교통처리 능력을 자랑한다.

하이패스 시스템은 올 상반기까지 개방식 7개 영업소, 연말까지는 수도권 폐쇄식 6개 영업소에 각각 확대 설치된다. 도로공사는 내년말까지 하이패스 시스템을 전국 요금소에 전면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로공사는 지불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3개 전자화폐 업체와 1개 휴대폰 업체를 수용키로 하고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통행요금 결제를 위해 카드사와의 제휴도 모색 중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관계 사업자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자카드 정산센터와 이들 업체의 연계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판교·청계·성남·구리 등 수도권 소재 개방식 10개 영업소에서 전자지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판교·청계·성남 등 3개소에서는 하이패스를 구축·운영 중이다. 이를 위

해 도로공사는 지난해까지 '전자카드·하이패스' 부문에 95억2300만원을, '요금징수설비·면탈시스템' 구축에 2298억3400만원을 각각 투자한 바 있다.

■ 국제 도로 및 공항 포장 학술대회 (ICPT 2005)



(사) 한국 도로학회에서는 오는 5월 10~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 5차 국제 도로 및 공항 포장 학술대회(ICPT 2005)를 개최한다.

ICPT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도로 및 공항 포장에 관련한 국제 기구로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같은 행사개최 등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기술 발전 및 개발을 촉진하고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 정보를 공유하고자 설립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의 발전 도모에 중점을 두고 있다.

ICPT는 국제 학술대회는 약 2~3년을 주기로 개최되는데 이번 한국에서 개최되는 ICPT2005는 제 5차이며 전 전문가의 강연 및 학술발표, 전시회 등을 통한 도로 및 공항 포장의 향후 미래 전략 수립하고, ICPT 국제기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세계 각국 주요 실무자 및 전문가에게 도로 및 공항 포장기술 및 정보 공유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 많은 해외 참가자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의 도로 및 공항 포장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그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 기대 된다.

도로인의 대축제의 장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현재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을 받고 있으며 3월 15일까지 사전등록을 마친 일반회원에게 등록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행사 개요

- 대회명: 제 5차 국제 도로 및 공항 포장 학술대회 (ICPT2005)
- 기간: 2005년 5월 10일(화) ~ 12일(목)
- 장소: COEX
- 주제: New Era of Pavement
- 주최: (사) 한국도로학회
- 후원: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 도로교통협회
- 참가예상규모: 세계 20여 개국 약 800여명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등록기간	2005년 3월 15일까지	2005년 5월 9~11일
일반회원	300,000원	350,000원
학생회원	100,000원	100,000원
동반자	100,000원	100,000원
전시회 참가	2,500,000원/독립부스, 3,000,000원/조립부스	

- 공식언어: 영어
- 홈페이지: www.icpt.or.kr

ICPT2005에의 참가 신청은 ICPT 공식 홈페이지 www.icpt.or.kr에서 가능하다. ICT 홈페이지에서는 ICPT에 관한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외의 세부적인 문의나 요구사항은 ICPT2005사무국으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내정보

ICPT 2005 사무국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2-14 신우빌딩 301호 (135-957)

Tel:02-3444-4941~5/ Fax: 02-3444-4953

E-mail: secretariat@icpt.or.kr

